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은경¹ · 윤숙자² · 최송식³

창신대학 간호과 전임강사¹,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전임강사²,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³

The Factors Influence upon Job Maintenance of the Mentally Disabled with Job Experience

Byun, Eun Kyung¹ · Yoon, Suk Ja² · Choi, Song Sik³

¹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College, Masan

²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Gyeongju

³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on job maintenance of the mentally disabled who employed befo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mentally disabled who participated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nd social rehabilitation center, there had experienced a job in the past. **Methods:** The number of community centers were 27 places, there were located in different regi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were 221 persons agreed to this study. Data was analyzed by Mean, SD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zation using SPSS/WIN 14.0. **Results:** General character such as age was significant factor. Monthly pay and working a day in the midst of job related factors were significant. Moreover, job rehabilitation program satisfaction rate and social support revealed significant factors. **Conclusion:** On the basis of results, Job rehabilitation programs for job maintenance of the mentally disabled should be development and establish mediate strategies to improve social support to them.

Key Words: Mentally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외에도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 되며, 동시에 사회발전을 의도하는 개인의 신분을 말해주는 사회적인 지위나 위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장애인에게 역시 이러한 직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며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자아성취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Park, Cho, & Han, 2004).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재활이 궁극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한 재활 즉, 경제적 자립과 직업적 자아실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그들의 보건 및 복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이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금전관리 문제,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문제 그리고 새로운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지 및 사회적응의 최종적 결과를 의미하는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요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Corresponding author: Yoon, Suk J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188, Taejong-ro, Gyeongju 780-712, Korea.
Tel: +82-54-770-5379, Fax: +82-54-770-5364, E-mail: yoonsj@gju.ac.kr

투고일 2011년 9월 12일 / 심사요청일 2011년 10월 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2일

정신장애인은 질병의 특성 상 약물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고 안정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관리, 대인관계, 직업이나 학업 등의 일상생활 기능장애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단순 업무직으로의 편중, 직종 제한, 고용주의 편견 등과 같은 사회적 이유도 정신장애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Kim, 2003).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이나 구직기술, 직업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사전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교육 중심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직업에 대한 동기수준을 향상시키고, 진로탐색 활동을 통하여 목표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직업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하며 직업유지에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해야 한다(Kim, 2004).

또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안정적이지 못한 작업환경,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은 재발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09). 또한 Sim (2001)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비판, 경멸, 부정적인 대인관계보다 격려, 지지 등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증상의 악화를 막을 뿐 아니라 직업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여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Kim (2006)의 연구에서 취업한 정신장애인에게 임파워먼트 요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임파워먼트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Lee (2003)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개념 중 부분적 특징을 강조한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기간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재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임파워먼트를 언급하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내면적인 무기력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부터 억압된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본인의 삶의 통제력을 가지게 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한편 Choi (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역할을 취득하고 경제력을 가지며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파워를 획득함으로써 본인의 삶에 통제력을 가지는 임파워먼트가 취업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하여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킴으로 내외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hoi (1999)의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주거형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고,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월소득이 생산직보다 판매/서비스직이 유의미하고, 사회기술능력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요인에서는 참여보다는 프로그램 만족도, 사회·환경적 요인에서는 동료나 고용주의 지지가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Park과 Jeon (2009)의 연구에서는 나이, 학력, 병식, 사회성, 과거 직업력, 가족의 지지, 취업직종, 사업체 규모가 유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병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판매직 보다는 생산직에서 직업유지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하였다. Jeon (2005)은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어, 특히 직무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대표적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했고, Lee (2009)와 Sim (2001)은 일상생활 기능,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같은 사회기술능력이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Sim, 2001; Lee, 2003), 사회·환경적 요인(Lee, 2003), 직업재활 프로그램 요인(Choi, 1999), 심리사회적 요인(Ryu, 2003), 사회기술 능력, 직업재활 프로그램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Lee, 2009) 등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직업유지에서 환경적,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통제력을 나타내는 임파워먼트는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직무만족과 직무몰입(Kim, 2006), 작업환경과 심리적 임파워먼트(Choi, 2009)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게 이루어졌으나 직업유지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사회·환경적, 직업재활 프로그램, 임파워먼트로 설정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증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고, 구체적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파악한다.
-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직업재활프로그램 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조사대상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고 직업재활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27개의 기관을 선정하였다.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와는 달리 자의에 의해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참여와 비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식을 가지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Son 등(2001)의 정신장애인 기능평가 도구 개발연구에서 기능평가도구에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일반인의 분류정확도가 85.35%,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70, .95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선정한 27개의 기관은 서울·경기 지역 사회복지시설 5개, 대구·경북의 정신보건센터 2개, 사회복지시설 6개, 부산·경남의 정신보건센터 6개, 사회복지시설 8개이다.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고 한번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는 연구목적, 자발적 참여, 응답내용의 비밀보장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참여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9월 10일에서 9월 30일까지였고 총 300부를 우편으로 배부하여 25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미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29부를 제외한 22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표본 수 크기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α) .05, β =.20, 중간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183명이 계산되었으며, 여기에 예측변수의 수를 합한 수 이상의 표본이 요구되므로(Tabachnick & Fidell, 2001) 총 192명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도구

1) 직무 스트레스

Kim (2003)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 스트레스 도구를 Jeon (200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4문항 5점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24문항은 역할특성 요인 6문항, 직무 관련요인 6문항, 대인관계요인 6문항, 임금·환경 관련 요인 6문항 등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로 나타났다.

2)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Choi (2002)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도구를 토대로, 총 9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Zimem, Dahlem, Zimet와 Farley (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도구인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연구목적에 맞추어 특별한 사람, 치료진, 친구의 지지로 취업한 정신장애인이 응답하는데 유용하게 만든 Choi (2002)의 총 12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 중 특별한 사람의 지지는 1, 2, 5, 10문항, 치료진의 지지는 3, 4, 8, 11문항, 친구의 지지는 6, 7, 9,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별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이웃, 목사, 신부, 교사, 애인, 친척, 직장동료, 학교선호배 등을 포함한다. Choi (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4) 임파워먼트

Rogers 등(1997)이 개발한 척도로 Lim (1999)가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8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자기 존중감-효능감 및 낙관적 시각 및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포함하는 자아상, 무기력-힘의 실제적인 힘, 지역사회 참여 및 자율성, 정당한 분노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의식 등으로 구성된다. Rogers (1997) 등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Lim (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

5) 직업유지 기간

직업유지 기간은 종속변수로서, 성공한 직업재활성과는 정신장애인이 퇴원 후 6개월까지 직업을 유지한 것으로 본 Cheadle와 Morgan (1972)의 기준에 따라 직업유지 '유'는 6개월 이상의 직업유지를 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무'는 6개월 미만 직업유지를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구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p 값이 .10 이하인 변인들을 선택한 다음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성 검정인 Hosmer-Lemeshow 검정에서 p 값이 .673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형성된 회귀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51.868, p < .001$).

(50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발병 시기는 20~29세 50.2% (111명), 20세 미만 25.8%(5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명은 정신분열병이 78.3%(173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46 (66.1)
	Female	75 (33.9)
Age (year)	< 30	31 (14.0)
	30~39	86 (38.9)
	40~49	75 (33.9)
	≥ 50	29 (13.1)
Education	≤ High	162 (73.3)
	≥ College graduate	59 (26.7)
Marriage status	Unmarried	159 (71.9)
	Married	20 (9.1)
	Divorce	35 (15.8)
	Others	7 (3.2)
Religion	Have	171 (77.4)
	None	50 (22.6)
Onset of illness (year)	< 20	57 (25.8)
	20~29	111 (50.2)
	30~39	43 (19.5)
	≥ 40	10 (4.5)
Diagnosis	Schizophrenia	173 (78.3)
	Mood disorder	27 (12.2)
	Schizo-affect disorder	14 (6.3)
	Others	7 (3.2)

2. 직업적 특성

직업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직종은 생산직 34.4%(76명), 단순노무직이 31.7%(70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기간제로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임시취업 39.4%(87명), 대상자 스스로 직업 활동을 유지하는 독립취업 34.8%(77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 근무일수는 5일 이상이 88.2%(19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 근무시간은 7~8시간이 63.3%(140명)로 가장 많았고, 월 급여는 50~100만원 미만이 48.0%(106명), 50만원 미만이 33.9%(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54.3%를 차지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정도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직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가 66.1%(146명)로 많았으며, 나이는 30~39세 38.9%(86명), 40~49세 33.9%(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0.6%(134명), 전문대학 이상 졸업이 26.7%(59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71.9%(159명)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유교 77.4%(171명), 무교 22.6

Table 2. Job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ype of job	Clerical	26 (11.7)
	Service	49 (22.2)
	Manufacturing work	76 (34.4)
	Work on daily	70 (31.7)
Type of employment	Independent employment	77 (34.8)
	Temporary employment	87 (39.4)
	Supportive employment	39 (17.7)
	Settled work field (out door)	18 (8.1)
Working day per weekend	1~4	26 (11.8)
	≥ 5	195 (88.2)
Time of working per day (hour)	< 4	11 (5.0)
	4~6	47 (21.3)
	7~8	140 (63.3)
	≥ 9	23 (10.4)
Monthly income (10,000 won)	< 50	75 (33.9)
	< 50~100	106 (48.0)
	< 100~150	33 (14.9)
	≥ 150	7 (3.2)
Working period (month)	< 6	120 (54.3)
	≥ 6	101 (45.7)

스트레스는 Table 3과 같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2.88 ± 0.63 이었고, 취업 프로그램 만족도는 3.54 ± 0.76 이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2.5점보다 약간 높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2.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3.34 ± 0.76 이었고, 임파워먼트는 2.77 ± 0.31 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2.5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임파워먼트는 평균 2.5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Social Support, Empowerment, Satisfaction to Job Rehabilitation Program, Job-stress (N=221)

Variable	M±SD	Min	Max
Social support	3.34±.76	1.09	5.00
Empowerment	2.77±.31	2.00	3.96
Satisfaction to JRP	3.54±.76	1.89	9.00
Job-stress	2.88±.63	1.00	4.64

JRP=job rehabilitation program.

4.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력방식(진입)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Table 4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성 검정인 Hosmer-Lemeshow 검정에서 p 값이 .673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형성된 회귀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1.868, p<.001$).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1.1%였으며, 회귀모형의 직업유지 유무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73.1%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 일반적 특성 중에는 연령, 직업적 특성 중에는 일 근무시간과 월 급여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월 급여가 많을수록, 일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분석해보면,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연령이 1.85배 높고,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일근무시간이 3.05배 높았으며,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월급여가 1.77배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가 1.75배 높고,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가 0.56배 낮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6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한다는 Lee (2003)의 연구와 유사하다. Vandergoot (1987)는 직업재활에 관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일하기에 가장 최적의 연령대인 25~44세의 대상자들이 성공적인 직업유지 요인이라고 하였고, Barnett, Marshall과 Singer (1992)는 직업재활이 16~24세 혹은 45세 이상인자 보다 24~44세인 사람인 경쟁고용에서 더 잘 배치되는 결과들은 연령에 따른 직업유지의 각각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적 특성이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비교·검토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월 급여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는 월 평균 급여가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im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Job Maintenance

(N=221)

Variables	B	SE	Wald	p	OR
Gender	0.528	.370	2.032	.154	1.696
Age	0.615	.252	5.967	.015	1.850
Religion	0.049	.383	0.016	.898	1.050
Education	-0.055	.365	0.022	.881	0.947
Marriage status	0.083	.235	0.124	.725	1.086
Onset of illness	0.347	.217	2.557	.110	1.415
Diagnosis	-0.481	.416	1.335	.248	0.618
Type of job	0.159	.246	0.416	.519	1.172
Type of employment	0.249	.365	0.464	.496	1.282
Working day per weekend	0.341	.558	0.374	.541	1.407
Time of working per day	1.116	.510	6.409	.011	3.051
Monthly income	0.571	.181	9.994	.002	1.771
Social support	0.582	.270	4.654	.031	0.559
Empowerment	0.340	.581	0.341	.559	1.404
Satisfaction to JRP	0.562	.250	5.032	.025	1.754
Job-stress	-0.110	.275	0.160	.689	0.896
-2 log likelihood	249.714 ($p < .001$)				
Chi-square	51.868 (df=16/ $p < .001$)				
Hosmer-Lemeshow	$\chi^2=5.767$ (df=8/ $p=.673$)				
Model summary (R^2)	.211				
Correct classification (%)	73.1				

OR=odd ratio; JRP=job rehabilitation program.

(2003)의 연구와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월 소득이 유의미하다는 Sim (2001)의 연구와 유사하다. 일정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므로 일정한 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때는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사회적 인식 등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Hwang, 1999),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임금은 직업선택이나 직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임금과 승진에 대한 고려 또한 구성원이 이직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2002).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은 이직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다는 결과를(Park, Cho, & Han, 2004)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요인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Choi (1999)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Lee (2003)의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직업유지 기간이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Choi (2002)의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재활요인 탐색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기간, 직업재활 프로그램만족도와 직업유지와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여부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들

의 강점을 확장시키고, 특별한 직업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므로 추후연구를 통하여 직업재활서비스 내용이나 만족도 등의 직업재활서비스의 요인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 과정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훈련기간의 규정이나 전문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직무적응 및 직장적응은 수행직무나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다 타당한 훈련기간의 설정을 위해서는 직종이나 사업체 특성 등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적응과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전문적 지원의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임파워먼트는 직업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Lee (2003)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취업 정신장애인의 취업만족에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Choi (2009)의 연구결과와 같이 직업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직업유지 기간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요인이 직업유지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 Choi (199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특별한 사람, 치료진, 친구의 지지에 대한 결과로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동료와 친구, 치료자 등에서의 지지를 포함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질병 특성상 사회적 관계의 취약함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 치료진, 친구를 제외한 특별한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직업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Lee, 2003)와 사회적 지지 중에 가족의 지지만을 결과로 하여 논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족의 지지가 직업유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Park & Jeon, 2009)를 통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 객관적 지지 자체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ong, 1988). Sim

(2001)이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비판, 경멸 등 부정적 대인관계보다 격려, 지지 등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증상의 악화를 막을 뿐 아니라 직업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는 Wethington과 Kessler (1986)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때 이것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중재되어야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연령이 30대가 넘어서면 가족 중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연로하여 지지적인 조력자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형제·자매는 출가하여 같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신장애인의 취업으로 인해 짐스러운 수혜적 입장에 놓여있던 가족이 경제적 독립을 희망하는 욕구로 인한 지지가 높아지면 사회적 지지가 있으나 사회적 지지의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yun과 Jun (2006)의 연구에서 직업적 성공을 통한 정상인이 되기를 바라는 지나친 가족 지지와 기대는 정신장애인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직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업재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사회적 지지 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업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Kim (2003)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직업유지와 상관성이 있어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는 동안에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직장을 적응해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요인들이 직업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유지 기간에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하여 직업유지 기간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에 동의한 일부 정신장애인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개인적, 사회·환경적, 직업재활 프로그램, 심리적 요인인 임파워먼트 등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정상인과 함께 다양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함으로써 직업재활에 성공하고 사회적 일원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

원하기 위해서 산업간호 영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환경적, 직업재활 프로그램, 심리적 요인, 직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간호중재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과 함께 독립된 사회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의 재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고, 그 요인에 따른 직업유지를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27곳에서 한번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 221명을 대상으로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직업적 특성에서는 월 급여, 일 근무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있어 연령, 월 급여, 일 근무시간, 사회적 지지,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 직업적 특성과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지도와 직업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여 직업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취업과 직무유지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지역사회와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rnett, R. C., Marshall, N. I., & Singer, J. D. (1992). Job experience over time multiple roles, and woman's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34-644.
- Byun, E. K., & Jun, S. S. (2009). Family support experience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2), 219-229.
- Cheadle, A. J., & Morgan, R. (1972). The measurement of work performance of psychiatric patients: A reappraisal. *British Journal Psychiatry, 120*, 437-441.
- Choi, E. Y. (2002). *A exploratory research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maintance for the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Choi, H. C. (2009). The effects of working environments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the employ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on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3), 267-297.
- Choi, H. S. (1999).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for persons with schizophren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Hwang, J. U. (1999).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working conditions for the discharged mental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Jeon, Y. J. (2005). *A case study on the job stress and coping styles of workers with mental disorder-in Seoul and Gyeonggi reg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D. Y. (200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stress to job maintance for the employed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H. J. (2002). *A study on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deaf-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M. H.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maintenance involve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 Lee, B. W. (200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of job maintenanc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9). *A study of factors affect the job maintenance of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 Lee, K. J.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Disability & Empowerment, 50*, 21-51.
- Lim, J. G. (1999).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ental health disorder's empowerment-compared with residential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K. S., & Jeon, M. R. (2009). A study on factors of job maintenance predic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4), 49-77.

- Park, S. D., Cho, J. H., & Han, M. H. (2004). A study on types and factors of separation among worker with disability. *Th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4*(1), 73-103.
- Park, S. D., Lee, J. H., & Cho, J. H. (2009).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for the worker with psychiatric disability. *Th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9*(1), 97-119.
- Rogers, E. S., Chamberlin, J., Ellison, M. L., & Crean, T. (1997). A consumer-constructed scale to measure empowerment among users of mental health services. *Psychiatric Services, 48*(8), 1042-1047.
- Ryu, J. S.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maintenance for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Sim, K. S. (2001). *A study on factors which affect the job maintenance of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 Song, G. Y. (1988).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daption and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on performances of dual task and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Vandergoot, D. (1987). Review of placement research literature: Implication for research and practic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0*(4), 243-272.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uccessful life ev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1), 78-89.
- Zimem,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